

2025 새해 이렇게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세계속 치유도시로 도약 하겠다”



스마트 팩토리 건립·외해 양식 기술 개발 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3000억원 투입 국립난대수목원·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속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균형 실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16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완도군이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년 화두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더 큰 세상으로 도약한다’는 뜻의 비상천리(飛上千里)로 정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군수는 “미국 항공우주청과 에너지부를 방문해 해조류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해양치유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6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지난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이를 가능케 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군수는 올해 더 큰 미래 도약을 이루기 위해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 사업과 SOC 사업 추진 가시화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군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시책 추진 ▲정주 여건 개선·균형 발전 도모 등 6대 균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을 ‘치유의 섬,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해 치유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공공 해양치유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호텔·리조트 건립 등 4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양과 산림, 섬 치유를 연계한 국내 유일의 ‘치유의 섬’ 조성을 가시화한다는 복

안이다.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건립 등 산업 생태계 확장, 해조류 기반 신소재 개발 가속화와 한미 국제 공동 연구 개발사업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에 군의 역할을 성실히 해 해양바이오산업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과 SOC 사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국비 총 3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착공, 완도 경유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에 총력을 다해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복 산업은 생산량 조절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복 가두리 감축과 어장 재배치 사업 확대, 고수온 적응 전복 신 품종 개발·보급, 완도 명품 광어는 브랜드화,

해조류는 우수·유망 품종 개발·보급, ‘자연 그대로’ 치유 농업 확산, 축산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으로는 고령자 복지 주택 조기 건립,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출생 기본수당 지원,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월 1만원 청년 상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폭넓은 복지 시책으로 군민의 행복 지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주 여건 개선·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선 도시 재생,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 일산농어촌개발사업·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어촌뉴딜300·신 활력 증진사업 등을 통해 지역 구석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신우철 완도군수는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 등 숏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난관이 닥쳐도 군민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면서 “우리의 미래는 순간순간이 쌓여 만들어 지기에 균형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2025년 업무보고회

“기후위기·물 문제 선제 대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지난 16일 이병호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문화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업무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변화 시기는 기회인 시기로서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과 AI 등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 에너지 관련 신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량·기후위기, 물 문제 등 시대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대응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형수 영산강사업단 단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배려하고 정당한 조직 확립과 업무 수행에 있어 언제나 안전을 우선으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사업단은 올 424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목표=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영광군이 반려견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는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

영광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실외 사육견(일명 마

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 기르는 5개월 이상 된 개가 대상이다.

올해는 총 200마리를 대상으로 암컷은 최대 40

만원, 수컷은 20만원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반려인의 수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들개 개체 수 증가로 가축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향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출범 2년도 안된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 주민소득 80억원...전국적 성공모델 주목

1년 6개월 성과 공유·보고회

지난해에만 묘목 생산 138만 본 생산

전국 최최신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정원수협동조합)이 주민소득 80억원을 달성하며 성공 모델로 떠올랐다.

신안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공연장에서 지난 1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를 알리는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신안군과 정원수협동조합의 협력으로 1점 1정원 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등을 동시에 실현하며 혁신적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성과를 공유하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2023년 5월에 설립된 정원수협동조합은 2023년, 31만 본의 묘목 생산으로 83억원의 군 예산 절감과 15억원의 조합원 소득을 올렸다.

2024년에는 138만 본 생산으로 총 506억원의 군 예산절감과 총 80억원의 이례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문적인 묘목 생산 기술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구축했으며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정·장·년층의 정착 사례를 창출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다.

2024년에는 조합 사례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 분야 최우수상을, ‘2024 지방자치 콘텐트 대상’에서 문화관광 분야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정원수협동조합은 올해에도 묘목 생산 및 보급 확대와 지역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풍요로운 1점 1정원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나무 나누어주기, 신안군 장학금 기탁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복지 사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박영철 정원수협동조합 이사장은 “조합 출범 1년 만에 457명을 확보하고 조합원 평균 2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ogwangju Nonghyup (서광주농협) featuring NH Bank, ZGM pay cards, and various services like 'Rice House' and 'Hot Sun'.